

사회

# 강진군 이벤트 행정 산부인과 유치 무산

## 전문의 수익보장 못 해줘... 신청자 한 명도 없어

강진군이 의료 시장에 대한 사전조사 없이 추진했던 산부인과 병·의원 유치가 결국 무산됐다.

강진군은 지난달 26일 병원 건물 무상임대와 수익 차액보전 등의 조건을 내걸고 산부인과 공개유치를 나서 의료계의 관심을 일으켰으나 최근까지 신청자가 단 한명도 없어, 강진의료원에 산부인과 전문의를 보강하기로 결정했다.

강진군이 산부인과 공개유치를 위해 내세운 조건은 건물 무상임대(2억 5000만원까지 지원)와 의사의 평균 급여 보장이다.

광주지역 산부인과(의원급) 의사의 평균 월수입이 1000만원인 점을 감안하면, 강진에서 400만원을 벌 경우 그 차액인 600만원을 지원한다는 조건이다.

이 경우 강진에서 개원한 의사는 대도시에서의 수입과 동일한 액수를 받고 시골에서 근무한다는 변화 외에는 어떤 혜택도 없다. 더구나 간호사 3~4명분에 대한 월급은 의사가 쥐어

하기 때문에 인센티브는 커녕 광주에서의 수입에 절반도 되지 못하는 상황이 된다.

의료계에서는 강진군이 산부인과 의사의 월급과 간호사 급여, 운영비, 시설·장비 및 인테리어 비용 등 각종 투자비에 대한 조사도 하지 않은 채 터무니 없는 유치계획을 발표했다라는 지적도 일고 있다.

이같이 산부인과 유치 인센티브 조건 자체가 대도시 의사에게 아무런 혜택도 되지 않는 조건이어서 강진군이 일회성 이벤트 정책을 발표했다라는 지적도 일고 있다.

강진군의 산부인과 공개유치가 알려지면서 병원 개설에 따른 인센티브를 묻는 문의전화도 14건이 있었으나 실제 신청자는 전무했다.

이들 중 일부는 병원 인테리어 및 시설 구축비 3억~10억원을 지원해 줄 수 있는 지 여부를 문의했는가 하면 4명의 간호사 인건비 지원, 교대 근무 의사 1명 지원 등 강진군으로서는 감당하기 버거운 조건도 있었

다. 그러나 의사들은 소규모 산부인과를 개설하더라도 의료기기·장비 구축 등 수익원에서 10억원을 넘게 투자해야 하는 데, 투자비 회수나 운영비는 고사하고 농촌지역에서 월급만을 보전받으면서 개업한다는 것은 상식 밖의 계산이라는 반응이다.

군 단위지역에서 산부인과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지자체가 병원을 지은 후, 전문의를 초빙하는 것만이 비교적 실현성이 높은 대안이라고 의료계는 입을 모으고 있다.

광주지역 한 산부인과 의사는 "산부인과 병원은 분만을 해야 하기 때문에 고가의 장비와 24시간 운영에 따른 추가 인력이 필요하고, 이로 인해 타 병원과 달리 인건비·운영비가 많이 든다"면서 "농촌지역에서 산부인과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의료시장에 대한 정확한 판단과 분석이 선행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중부취재본부=남철희기자 chou@



‘사랑모아’ 26일 오후 광주시 서구 치평동 상일여고 강당에서 열린 ‘사랑모아(母愛)’ 행사에서 이 학교 부임 후 출산한 여교사들이 학생들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 학교는 지난 2년동안 여교사 8명이 출산하고, 현재 4명이 임신 중인 것을 기념하기 위해 행사를 개최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 나원침 (8096) 김장동



# 히말라야 원정대 2명 실종

## 광주출신 박행수 씨 등... 김홍빈 대장은 이송 치료

### 마나슬루 정상 문턱서

한국도로공사 히말라야 마나슬루(8163m) 원정대가 등반 도중 기상악화로 조난돼 광주 출신 산악인 1명을 포함 2명이 실종됐다.

대한산악연맹과 외교통상부에 따르면 '한국도로공사 마나슬루 원정대' 대원 4명과 김홍빈씨가 이끄는 '2010 마나슬루-안나푸르나 원정대'가 지난 24일 마나슬루 정상을 향하던 해발 8000m 지점에서 기상 악화돼 조난됐다.

이 사고로 한국도로공사 원정대에 참가했던 박행수(27·광주대산악회 OB)씨와 윤치원(42·영원무역)씨가 실종됐고 김홍빈(47·송원대산악회



박행수 대원

박행수(27)는 히말라야 등반 도중 기상악화로 조난돼 실종됐다. 그는 광주출신이다. /정후식기자 who@kwangju.co.kr

OB)·김미곤·강연용씨 등 3명은 헬기로 긴급 이송돼 카트만두 시내 병원에서 입원 치료중이다.

대원들은 전날 정상 공격을 위해 제3캠프를 함께 출발했으나 갑자기 날씨가 나빠지자 하산 도중 비박을 감행했으며 이 과정에서 대원들이 탈진하고 심한 동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 관계자는 "주네팔대사관이 26일 오전 9시께(현지시각) 신고를 받고 담당 영사를 병원으로 급파, 부상자 면담을 통해 사고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한산악연맹과 한국도로공사는 26일 사고 수습을 위해 박행수 광주시산악연맹 부회장 등 3명을 현지로 급파했다.

한국도로공사 원정대와 김홍빈 대장이 이끄는 원정대는 네팔 북부에 위치한 세계 8위의 고봉인 마나슬루와 안나푸르나 연속 등정에 도전하기 위해 지난달 22일 출국했다.

한편, 여성 최초로 히말라야 8000m급 14좌 완등에 나선 오은산씨는 이번 사고와 관계 없이 예정대로 27일 오후 3시께 안나푸르나 정상 도전에 나설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후식기자 who@kwangju.co.kr

### ‘공갈’ 모 신문사 대표 구속

화순경찰은 26일 공사 현장에서 돈을 뜯는 혐의(공갈)로 광주·전남 지역 모 신문사 대표이사 김모(41)씨를 구속했다.

김씨는 지난 6일 화순을 지방도 공사 현장 감리단 사무실에서 현장소장에 "폐기물 처리를 제대로 했는지 전남도에 확인하도록 하겠다"고 말해 회식비 150만원을 받는 등 2차례에 걸쳐 25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중부취재본부=정운수기자 unsu@

### “지팡이가 물어내” 60대 상습 공갈

순천경찰은 26일 “교통사고로 지팡이가 부러졌다”고 우겨 운전자에게 돈을 뜯어낸 임모(여·66·충북 진천군)씨를 공갈 혐의로 불검아 조사중.

경찰에 따르면 임씨는 지난 25일 오후 2시40분께 순천시 연향동 한 골목에서 최모(45)씨가 운전하는 승용차에 부러진 지팡이를 들이댄 뒤 “차에 치어 지팡이가 부러졌다”며 지팡이가 2만7000원을 받은 혐의.

임씨는 40여분 뒤 인근 도로에서 운전자 문모(여·35)씨에게 같은 방법으로 7만5000원을 요구했으나, 때마침 근처를 지나던 최씨의 신고로 경찰에 들미.

중부취재본부=김은종기자 ejkim@

## ‘바다 사나이’들 바다 속으로

### 진도 해상 추락 링스헬기 승무원 4명 장례식

### 홍승우 대위·광주출신 노수연 상사 귀환 못해

지난 15일 진도 인근 해상에서 초계임무 중 추락해 숨진 해군 제3함대 소속 링스헬기 승무원 4명의 장례식이 26일부터 사흘간 함대 사령관장(將)으로 임수된다.

영결식은 28일 오전 10시 3함대 사령부에서 열리며, 3함대 장병과 유가족들이 참석해 고(故) 권태하(32) 소령, 홍승우(25) 대위, 임호수(33) 상사, 노수연(31) 상사의 마지막 가는 길을 함께 할 예정이다.

3함대와 해경은 지난 24일 진도군 조도면 독거도 동남쪽 10km 바다 밑 37m 지점에서 링스헬기의 동체를 인양한 뒤 임 중사의 시신을 수습했으나 26일까지 홍 대위와 노 상사의 시신을 찾지

못했다. 광주 출신인 노 상사는 지난 1999년 해군 부사관 후보생 178기로 입관한 뒤 6항공전단·3함대 항공지원대 등 줄곧 비행대원으로 근무했다. 오는 11월 결혼식을 앞둔 노 상사는 부인 한신희(27)씨와 혼인신고만 했다. 예초 4월 초에 결혼식을 올릴 예정이었으나 집안 사정으로 연기했다. 그는 특수전전대장 표창·6전단장 표창·629대대장 표창을 받았다.

홍 대위는 3대 독자로 한국해양대를 졸업한 뒤 지난 2007년 사관후보생 102기로 입관, 6항공전단·3함대 항공지원대 등에서 근무했다. /서취재본부=박현영기자 hypark@

### 체불임금 받으러 왔는데

### 前 직원 폭행 40대 검거

광주북부경찰은 26일 밀린 임금을 받으러 자신의 집에 찾아온 전 직원을 폭행한 안모(46)씨를 폭행 혐의로 불검아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건축업자인 안씨는 지난 25일 밤 11시50분께 광주시 북구 오치동 자신의 집에서 체불 임금 120만원을 받으러 온 전 직원 김모(55)씨의 먹살을 잡고 혼돈 혐의를 받고 있다. /이종형 기자 galee@

### 종경이 성폭행 시도 의혹

경찰청 감사관실은 제주지방경찰청 참모인 총경급 간부가 여성을 성폭행하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검찰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 간부는 지난달 22일 제주의 음식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여종업원을 성폭행하려다 여종업원이 강력하게 저항해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연합스

## 유형업소 밀착 경찰관 등 17명 기소

### 광주지검, “보도방 삼방” 진위는 못 밝혀내

광주지검 강력부(부장검사 김 철)는 26일 경찰관에게 ‘뒷돈’을 건넨 유형업소 업주 주모(40)씨와 보도방 업주 5명 등 7명을 직업안정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보도방 종업원 등 9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또 유형업소의 불법 사실을

묵인해주고, 구속된 업주의 석방을 돕는 대가로 주씨에게 돈을 받은 광주 모 경찰서 소속 이모(47) 경위를 뇌물수수 및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보도방 업주들은 불법으로 상무지구에서 여성 도우미 등을

공급하면서 20여명 규모로 ‘보도방 협회’를 조직한 뒤 회비를 걷어 단속 경찰관들을 상대로 로비를 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초 검찰은 이달 초 보도방 업주 강씨의 진술을 토대로 경찰관 4명의 유착 여부에 대해 사실 확인 작업을 벌였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이 경위가 유형업소 업주로부터 돈을 받은 정황만 밝혀냈을 뿐, 보도방 업주와 경찰과의 연결고리를 규명하지는 못했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 공민자랑시대

민주주의의 꽃

### 새로운 마음으로 쓰는 문화의 꽃

더 나은 세상을 위한 문화의 꽃

2010년 4월 27일 화요일

광주광역시 서구 치평동 상일여고 강당

11시 30분

문의: 010-9900-1111

www.kwangju.or.kr